매주 목요일 오후 1:30

1 학기 : 2023.03.30.~06.08.

2학기 : 2023.08.31.~11.09.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

## -종로, 동아시아를 만나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주최

AEAS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관

# ‘종로다산학교’가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2023년 봄, ‘종로다산학교’가‘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품격있는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는 종로구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이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종로구를 대표하는 고품격 인문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는 구민들의 다양한 인문학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종로구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문 교양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2023년도에는 1, 2학기 총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구민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종로, 동아시아를 만나다’라는 부제를 통해, 시민교양의 수준의 제고 및 지역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23년 1학기 교육 과정 안내

## 1 동아시아 여행의 문화사 ① 자아, 경계, 지식정보

| 회차 | 일자 | 강사명 | 강의 주제 |
|---|---|---|---|
| 1 | 3.30 | 진재교(성균관대) | 조선조 후기 기행과 기행의 문화사 |
| 2 | 4.6 | 김경호(성균관대) | 2천년전 동서 교류의 중심지, 비단길(Silk Road)의 현장을 가다 |
| 3 | 4.13 | 박수밀(한양대) | 동아시아 최고의 모험 여행기, 열하일기 |
| 4 | 4.20 | 이숙인(서울대) | 산수유람의 꿈, 여자들이 보고 느낀 산천 |
| 5 | 4.27 | 신춘호(한국방통대) | 뜻밖의 타국체험, 해상표류와 표해록이야기 |

## 2 동아시아 회화사 ① 한국의 명화를 다시 보다

| 회차 | 일자 | 강사명 | 강의 주제 |
|---|---|---|---|
| 1 | 5.11 | 고연희(성균관대) | 정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
| 2 | 5.18 | 김소연(문화재청) | 김홍도와 장승업, 실력파의 명작이야기 |
| 3 | 5.25 | 김지혜(건국대) | 미인도, 조선의 명화였을까? |
| 4 | 6.1 | 유재빈(홍익대) | 광인 화가 최북을 기억하다 |
| 5 | 6.8 | 김수진(성균관대) | 책거리, 트렌드로 떠오르다 |

# 수강신청방법

종로교육포털
http://lle.jongno.go.kr/

로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평생교육 신청

※ 종로교육포털은 크롬(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현재 인터넷익스플로어로 이용 중이신 학습자분들께서는
크롬(chrome), 엣지(microsoft edge)브라우저 등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 교육과 평생교육팀(02-2148-19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학기 교육 과정 소개

## 1 동아시아 여행의 문화사 ① 자아, 경계, 지식정보

| 회차 | 일자 | 강사명 | 강의 주제 |
|---|---|---|---|
| 1 | 3.30 | 진재교(성균관대) | 조선조 후기 기행과 기행의 문화사 |
| 2 | 4.6 | 김경호(성균관대) | 2천년전 동서 교류의 중심지, 비단길(Silk Road)의 현장을 가다 |
| 3 | 4.13 | 박수밀(한양대) | 동아시아 최고의 모험 여행기, 열하일기 |
| 4 | 4.20 | 이숙인(서울대) | 산수유람의 꿈, 여자들이 보고 느낀 산천 |
| 5 | 4.27 | 신춘호(한국방통대) | 뜻밖의 타국체험, 해상표류와 표해록이야기 |

### 1강. 조선조 후기 기행과 기행의 문화사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한 이후에도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욕망을 표출하였다. 미지의 세계로 기행하는 것은 그래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지리와 정보를 모른다면 그것은 기행이 아니라 탐험에 가깝다. 탐험에서 벗어나 기행이라는 욕망의 실현은 지도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산수 취향과 함께 두드러졌다. 조선조 후기 채색지도(彩色地圖)의 성행과 산수유기(山水遊記)는 기행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보여준다.

| | |
|---|---|
| **강사** | 진재교 bakun@skku.edu |
| **일시** | 3. 30.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2강. 2천년전 동서 교류의 중심지, 비단길(Silk Road)의 현장을 가다

실크로드는 수만 갈래의 길로 구성되어 세상을 그물망으로 연결해주는 교통로이자 인류 역사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역사적 길이다. 아울러, 문명의 동맥이자 요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 서안에서 시작하여 지중해까지 이르는 실크로드! 본 강의에서는 중국 고대사에서 발현된 실크로드의 역사, 정치, 개척사 등 문명 전반을 이해하고, 동서 교역의 흐름을 파악하여, 현재에도 유효한 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 |
|---|---|
| **강사** | 김경호 haozu@skku.edu |
| **일시** | 4. 6.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3강. 동아시아 최고의 모험 여행기, 열하일기

열하일기는 문명과 인간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동아시아 비전까지 도달한 고전 최고의 여행기이다. 열하일기를 통해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진 한 · 중 문화 교류의 메커니즘과 교유의 실상을 이해한다. 나아가 조선 역사상 최초의 경험인 연암의 열하 체험을 통해 건륭제의 고희연이 갖는 사회 정치적 의미와 한 지식인의 동아시아 정세 비전에 대해 살펴본다.

| | |
|---|---|
| **강사** | 박수밀 davidmil@hanmail.net |
| **일시** | 4. 13.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4강. 산수유람의 꿈, 여자들이 보고 느낀 산천

문밖 출입마저 제한된 조선사회 여성들이 꿈꾼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풍광을 즐기고 낯선 곳을 기웃거리며 해방을 맛보는 호사를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 이념에 묶이고 현실에 걸려 집을 떠나지 못했을 뿐. 이 강좌는 여성들이 남긴 여행기록을 따라가며 고전적 여행의 흥취를 함께하고자 한다. <동명일기>(1772), 〈부여노정기〉(1802), 〈이부인기행가사〉(1821), 〈금행일긔〉(1845), <호동서낙기>(1851) 등과 시인 황진이의 엽기적인 금강산기행이 소개된다.

| | |
|---|---|
| **강사** | 이숙인 confemi@naver.com |
| **일시** | 4. 20.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5강. 뜻밖의 타국체험, 해상표류와 표해록이야기

동아시아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표류(漂流)'는 해양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일면이다. 해상표류와 송환과정은 전통시대 타국을 경험한 독특한 기회였기에 당대인의 타자 인식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본 강의는 이러한 표류기록의 가치에 주목하여 표류인이 경험한 타문화접촉 과정의 정황을 재해석하고 동아시아 전통시대 문화교류의 일면과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강의는 한.중.일에 널리 소개된 최부 〈표해록〉과 동아시아 표류서사를 보여주는 문순득 〈표해시말〉의 지리공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표류와 타국체험을 소개한다.

| | |
|---|---|
| **강사** | 신춘호 cameducer@mail.knou.ac.kr |
| **일시** | 4. 27.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동아시아 여행의 문화사 ① 자아, 경계, 지식정보

# 강사소개

**진재교**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교수

한국한문학을 전공하였고, 한국한문학회 회장, 한국한문교육학회 회장. 한국한문학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동아시아 고전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계 홍양호 연구》, 《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등의 저서 외에도 《학문장과 동아시아》,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 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윤》등의 공저가 있으며, 《정조어찰첩》, 《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설수외사》, 《18세기 일본 지식인 조선을 엿보다-평우록》, 《19세기 견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지수염필》 등의 역서가 있다.

**신춘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촬영 감독

방송촬영(OUN)감독이자 문화콘텐츠학 박사. 현재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대표로 있다. 박광일 저자와 함께 임시정부 답사단에 참여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역사적인 현장들을 생생히 촬영했다. '연행노정 기록사진' 개인전 및 공공전시(실학박물관/천안박물관/심양총영사관)를 했고, 방송다큐멘터리 〈의주대로〉와 〈열하일기〉(3편/촬영·공동연출)를 제작했다. 공저로는 《코리아타운과 축제》, 《코리아타운과 한국문화》,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옛길이 들려주는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이숙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족과 여성 중심의 연구 시각으로 조선시대 사상사를 기획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유교경전의 여성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여러 대학에서 동양철학 및 한국철학을 강의해왔다. 근래에는 전문 연구의 대중화에 의미를 두고 다산연구소의 《실학산책》, 《한겨레》의 《이숙인의 앞선 여자》 등의 칼럼을 써왔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학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정절의 역사》 《신사임당》이 있고, 공저로 《조선 여성의 일생》 《노년의 풍경》 《일기로 본 조선》 《선비의 멋 규방의 맛》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열녀전》 《여사서》 《오륜행실도》와 공역으로 《역주 묵재일기》(전6권) 등이 있다.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원으로,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국 고대 문자, 문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여 고대 문화사 전반으로 연구의 지평을 확장. 《역주 중국정사 조선전 2》, 동북아역사재단, 2020, 《고전학의 새로운 모색》,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8 《동아시아로부터 생각한다》, 동아시아학술원, 2017 《인간 시황제》, AK커뮤니케이션즈, 2017 《문자의 발견 역사를 흔들다》, 너머북스, 2016 외 다수

**박수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현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고전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는 고전학자. 실학의 인문 정신과 글쓰기, 고전의 생태 정신, 동아시아 교류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암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연암산문의 멋》,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열하일기 첫걸음》, 《글로 만나는 옛 생각. 고전산문》, 《정유각집》(공역), 《연암 산문집》 등 다수가 있다.



# 2023년 1학기 교육 과정 소개

## 2 동아시아 회화사 ① 한국의 명화를 다시 보다

| 회차 | 일자 | 강사명 | 강의 주제 |
|---|---|---|---|
| 1 | 5.11 | 고연희(성균관대) | 정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
| 2 | 5.18 | 김소연(문화재청) | 김홍도와 장승업, 실력파의 명작이야기 |
| 3 | 5.25 | 김지혜(건국대) | 미인도, 조선의 명화였을까? |
| 4 | 6.1 | 유재빈(홍익대) | 광인 화가 최북을 기억하다 |
| 5 | 6.8 | 김수진(성균관대) | 책거리, 트렌드로 떠오르다 |

### 1강. 정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

정선(鄭敾)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정선의 산수화는 정치적으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사적으로는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발견된 그림이었다.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불린 정선은 금강산의 장면을 그린 화첩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진경은 빼앗긴 국토의 사생(근대적 스케치)으로 의미화된 민족적·근대적 가치였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18세기의 진경과 정선의 위상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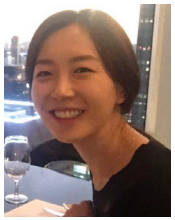
| | |
|---|---|
| **강사** | 고연희 lotus126@skku.edu |
| **일시** | 5. 11.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2강. 김홍도와 장승업, 실력파의 명작이야기

오늘날 조선시대 후·말기를 대표하는 '국민화가' 김홍도와 '천재화가' 장승업의 위상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김홍도는 풍속화가인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세속의 삶을 묘사했던 풍속화가로서의 측면이 부각된 것일까? 술을 좋아하고 배움이 없었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던 장승업의 대표작은 무엇일까? 대가(大家)의 명성은 존재하되, 그의 작품이 명작으로서는 모호한 위치에 있다면 그 간극과 불균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근대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서술, 재구성되었던 조선후기 회화사와 그 시대적 요구를 고찰해볼 것이다.

| | |
|---|---|
| **강사** | 김소연 kimsoyeon@ewha.ac.kr |
| **일시** | 5. 18.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3강. 미인도, 조선의 명화였을까?



신윤복의 미인도가 조선을 대표하는 명화이자 최고의 미인을 담은 미인도로 평가받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미인도를 말한다면 대부분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도에 비해 이 작품이 공개되고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미인도는 그동안 왜 숨겨졌던 것일까? 조선시대에서 근대를 거치며 변화된 미인도 제작과 감상의 역사를 통해 신윤복의 미인도가 춘정(春情)을 그린 그림에서 인물화의 걸작으로, 작품 속의 여성 또한 기녀에서 조선 최고의 미인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
| **강사** | 김지혜 dana136@hanmail.net |
| **일시** | 5. 25.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4강. 광인 화가 최북을 기억하다

조선 후기, 최북(崔北)이라는 한 화가의 사례를 통해 화가의 명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추척해본다. 최북은 조선 후기의 여항 화가로서 기이한 행적으로 이름나 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눈을 찌르고, 호기를 부르며 금강산 구룡연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일화들은 그를 기인, 광인의 대열에 올려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화들은 흥미롭게도 대부분 그의 사후에 생산된 것이다. 생전에 그를 가까이서 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재능있고 성실한 화가로 그리고 있다. 무엇이 그를 재능 있는 화가에서 광인 화가로 바꾸어 놓았을까. 최북을 통해, 한 화가의 전기가 생산되고 그것이 그의 작품 평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

| | |
|---|---|
| **강사** | 유재빈 yoo.arthistory@gmail.com |
| **일시** | 6. 1.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 5강. 책거리, 트렌드로 떠오르다

18세기 왕실에서 출현하여 20세기 민간에 이르기까지 200년 간 조선에서 크게 유행했던 책거리 그림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한다. 조선 사람들이 수집하고 소유하길 원했던 수입품, 사치품, 희귀품, 골동품, 완상품(玩賞品), 명품을 그린 책거리를 감상함으로써 그림과 물건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안경과 거울, 책과 문방구, 새장과 어항,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떤 의미였으며, 외제 물건은 어떤 루트를 통해 조선에 흘러 들어왔을까? 강의는 조선의 얼리 어덥터(early adopter)들이 어떤 물건을 구했는지, 그 수입처는 어떻게 중국 및 일본에서 미국 및 유럽으로 바뀌어 갔는지를 살핌으로써 시각예술이 품고 있는 정치, 외교,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다.

| | |
|---|---|
| **강사** | 김수진 sjkim1224@gmail.com |
| **일시** | 6. 8. 목. 오후 1:30 |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동아시아 회화사 ① 한국의 명화를 다시 보다

# 강사소개

**고연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에서 겸재 정선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 뒤, 같은 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영모화초화의 정치적 성격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다. 한국문학과 회화를 함께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민족문화연구원(고려대), 한국문화연구원(이화여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서울대) 연구교수, 시카고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시대 산수화』 『그림, 문학에 취하다』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등이 있고, 공저로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등이 있다.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지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한국회화사와 한국근대미술사를 지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근대문화재 분과)으로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공저), 「한국 근대기 미술 유학을 통한 '동양화'의 추구: 채색화단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여성의 서화교육과 작가활동 연구」, 「해강 김규진 묵죽화와 『해강죽보(海岡竹譜)』 연구」 등이 있으며, 한국 근대미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유재빈**
홍익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조대 궁중회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에 『예술의 주체』,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이상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선 및 청의 궁중회화이며, 조선 후기 판화와 물질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지은 책으로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정절의 역사》 《신사임당》이 있고, 공저로 《조선 여성의 일생》 《노년의 풍경》 《일기로 본 조선》 《선비의 멋 규방의 맛》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열녀전》 《여사서》 《오륜행실도》와 공역으로 《역주 묵재일기》 (전6권) 등이 있다.

**김지혜**
건국대학교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학예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문화예술사와 한국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 시각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근대 미인 담론과 이미지」, 「미스 조선, 근대기 미인 대회와 미인 이미지」, 「근대 광고 이미지에 나타난 주부의 표상」,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일상』(공저), 『명화의 탄생 대가의 발견』(공저) 등이 있다.

**김수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덕성여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왔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학술연구교수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에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공저)와 『역사와 사상이 담긴 조선시대 인물화』(공저) 등이 있다. 현재 '해외의 민화컬렉션'을 『월간 민화』에 연재 중이다.



# 2023년 2학기 교육 과정 안내

**수강신청 및 모집**

2023. 7월 경 예정

**교육일정**

2023.08.31.~11.09 (매주 목요일 오후 1:30)

**강좌명**

〈동아시아 여행의 문화사 ② 타자, 세계, 교류〉

〈동아시아 회화사 ② 옛 그림을 만져보다〉

※ 강의시간표와 강의소개는 2학기 개강 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오시거나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종각역**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종로-2번을 이용하여
학교 내부까지 오시면 됩니다.

## 셔틀버스

혜화역 1번 출구 → 학교 진입로 앞 정류소(올레AS
센터 성균관대입구점 맞은편) → 성균관대학교 정문
→ 600주년기념관 → 정차소(농구장 옆)
요금 : 400원
운행시간 : 평일/토요일 07:00~19:00
※ 코로나19 관련 감축 운행중이며, 향후 운행시간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 마을버스

**종로 02번**
왕복, 수선관위 후문 앞 옥류천정류장 출발

**종로 08번**
편도, 양현관 앞 출발

**대학로 07번**
4호선 혜화역 1번출구 출발

## 시내버스

**간선(파랑) 버스**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지선(초록) 버스**
2112



# 감염병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함
- 입장 시 방역에 협조하고, 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
- 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을 제한함
- 강의실 내에서 옆 사람과 거리를 두고 착석할 것
- 출석부 서명 등에 가급적 개인 필기구를 이용할 것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 이동할 때나 강의실 입실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둘 것
- 이 외에도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

# 종로-성균
# 동아시아 아카데미